

고흥군,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인력 역량강화교육



고흥군은 지난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 간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맡고 있는 신규 간호직 공무원 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1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읍면 간호직 공무원 대상 1:1 맞춤형 교육 지역실정에 맞는 전문상담인력 양성 목표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의 '2022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세부 업무수행방법과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전산실습 등으로 편성되어 신규 간호직 공무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복지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상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 ·복지+건강 기능 강화 등으로 종전 복지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전문상담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흥군은 고흥읍, 도양읍, 금산면, 도화면, 포두면 5개 읍·면에 간호8급 공무원을 배치할 시

작으로 추가 복지인력을 확충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인프라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및 보건·복지분야 통합사례관리, 주민참여형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주민과 접촉하는 최일선 행정단위인 읍면에서 복지와 건강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겠다"면서 "모든 군민을 복지대상자로 두고, 조금의 혜택이라도 더 주어질 수 있도록 고흥군만의 복지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정인화 광양시장, 여름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현장점검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 18일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역 내 무더위쉼터를 방문하고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점검은 무더위쉼터의 청결 상태는 물론 에어컨 가동 여부, 안내간판 부착 상태, 관리대장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상태 등을 확인했으며, 어르신들의 예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 어르신들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특히, ▲폭염 시에는 물을 자주 마셔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햇볕을 차단하는 양산 또는 모자를 착용할 것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오후 5시에는 가급적 휴식을 취할 것 등 평소 어르신들이 쉽게 시행할 수 있는 폭염 대비 건강수칙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아울러, 시는 여름철 폭염에 선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2개 읍면동에 3,897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 116개소와 그늘막 77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보성군, 탄소중립 실천 마을 커뮤니티 조성 공모사업 선정

보성군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공모한 탄소중립 실천 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1번지 조성면 가온(중심)마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공모에 참여한 보성군은 지역주민들이 탄소중립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성군은 조성면 동룡면 복지센터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탄소중립 교육장 및 실천 모임 공간, 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 주민 쉼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인근 조성시장 내 태양광 발전설비와 태양광 LED 가로등을 설치해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고, 냉·난방비와 운영비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환경보호의식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보성=김숙순기자

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 '에코 공감의 향연' 개최

전남 동부권, 경남 서부권 환경단체 등 초청...23일 오전 10시 박람회장에서 열려

여수시가 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로 23일 오전 10시 박람회장에서 '에코 공감의 향연'과 '탄소제로 에코 플로깅' 행사를 개최한다.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 환경단체, 일반 시민 등 선착순 참가자 212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에코 공감의 향연'은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 대표가 기후환경보호 결의문을 낭독한 후 참석자들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퍼포먼스를 펼치게 된다. 이어지는 '탄소제로 에코 플로깅(plogging, 달리기를 하며 쓰레기를 줍는 운동)' 행사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들산 무를

목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버스에 탑승해 환경보호 강의를 들으며 무슬목으로 이동한 후, 온열질환에 대비한 기념품(모자)과 생수 등을 지급받고 플로깅에 참여하게 된다. 플로깅 종료 후에는 간단한 간식도 배부될 예정이다. 참가 문의는 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사업팀(☎061-653-0007)으로 하면 된다. 김태완 투자박람회과장은 "단순히 쓰레기를 줍기만 하는 플로깅 행사에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해양환경인명구조단에서 작은 이벤트와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보호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자원봉사 시간도 인정되니 특히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순천시, 하반기 '가든 마스터 양성교육' 수강생 모집

정원조성 및 관리반·정원문화코디반 모집...25일부터 27일까지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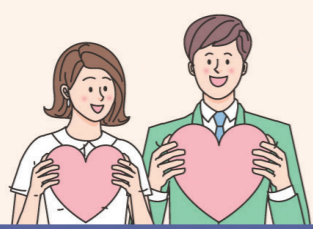
순천시는 미래 정원문화와 산업을 선도할 정원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가든 마스터 양성교육'을 운영한다. '가든 마스터 양성교육'은 정원교육 심화과정으로, 정원관련 분야 전공자 및 종사자, 시에서 운영하는 RHS(영국왕립원예협회), 전라남도 정원전문가 등 정원교육을 수료한 이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2022년 하반기 교육은 정원조성 및 관리반·정원문화 코디네이터반 2개 과정으로 중보신정이 가능하며, 과정별 각 25명을 모집하여 8월 24일부터 15주간 총 45시간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기존 가든 마스터 수료조건은 출석과 평가 결과로 수료가 가능했으나, 이번 하반기 교육부터는 8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 수료조건에 추가함에 따라 교육생들의 현장 활동성 강화를 도모했다. 교육희망자는 경력 및 수료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순천시 정원산업과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가든 마스터 양성교육은 ▲정원조성 및 관리반 ▲정원문화 코디네이터반 ▲정원용 소재 생산반 ▲정원디자인반 총 4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과정을 모두 수료할 경우 정원문화와 산업을 아우르는 순천시 인증 가든 마



스터 증을 수여 받는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3순천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가

든 마스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 속 정원문화와 산업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방임, 유기, 학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